

해남 문내면, ‘제1회 새봄 새김치 담그기’ 행사 가져

관내 노인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기탁



해남군 문내면에서는 지난 19일 기관사회단체가 힘 모아 새봄 새김치 담그기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새마을 남자지도

자 협의회에서 주관하고 면사무소, 빌전협의회, 이정단, 부녀회 등 관내 기관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실시하게 되었다.

새김치 나눔 행사를 위해 전날

부터 부녀회 회원들이 양념작업 등 행사준비를 위해 두 팔 걷고 나섰으며, 다른 봉사자들도 보조 작업을 위해 힘을 쏟았다.

행사 당일 200여명의 시민의 손길로 벼루에 진 새김치(10kg, 300박스)는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관내 소규모 노인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및 경로당 등 55개소와 해남군내 노인복지시설 5개소에 150박스를 전달했다. 또한 나머지 150박스는 겨울배추 흥보를 위해 지역항우 및 행사 참여자에게 고루 나누어 주었다.

박정일 문내면장은 “지역 기관 사회단체가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시민과 점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 매우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며 “행사를 위해 후원하여 주신 모든 사회단체와 지역상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순천 할머니들의 그림일기’ 눈물과 감동의 출판기념 북콘서트



한 할머니 작가 20명 한 분 한분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한글도 모르는 사람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려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선생님 잘 만나서 그리다 본게 그렇게 됐습니다. 다 선생님 덕이고 여러분 덕이고 다 고맙습니다” “옛날에요, 학교를 놓쳤어요. 글 배우라고 가서 본계 우리 선생님이 아무 양전해서 뭐가 아주 잘 가르쳐요 우리 또 미술 선생님이기가 맘해. 동네서 임순남이가 어제도 TV에 나왔는데 오늘도 나온다고 아

이젠 버스 타는 것도, 은행 가는 일도 두렵지 않다며 ‘기쁩니다’, ‘고맙습니다’를 연신 말씀하시는 할머니 작가님들의 이야기에 참석한 독자들은 울고 웃다를 반복했다.

순녀의 감사편지 낭독과 축하떡 커팅으로 마무리된 북콘서트는 2층으로 옮겨 원회전시를 감상하는 시간과 사인회로 이어졌다. 독자들은 시인을 받기 위해 긴 줄을 기다렸으며 작가님들은 한 자 한 자 써내려 가며 참석한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이번 북콘서트는 사인회를 끝으로 미루어진 북콘서트는 2층으로 옮겨 원회전시를 감상하는 시간과 사인회로 이어졌다. 독자들은 시인을 받기 위해 긴 줄을 기다렸으며 작가님들은 한 자 한 자 써내려 가며 참석한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순천시 그림책도서관에서는 최근 ‘우리가 글을 몰랐지 인생을 몰랐다’ 출판기념 북콘서트를 허석 순천시장 부부와 이복남 순천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그림책협회 한성옥 회장, KBBY 한국지부 심향분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나평대열의 축하공연으로 시작된 이번 북콘서트에서는 출판에 참여

장흥종합병원, 행촌장학회 장학금 3천 5백만원 전달



의료법인 우범의료재단 장흥종합 여전에서 학업 중인 학생들로 지역

출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로 구성됐다.

2005년 설립된 장흥종합병원 행촌장학회는 매년 2회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29회에 걸쳐 1214명의 학생들에게 8억 7천 5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행촌장학회장인 김동국 장흥종합병원장은 “지속적인 장학사업을 통해 인재육성과 지역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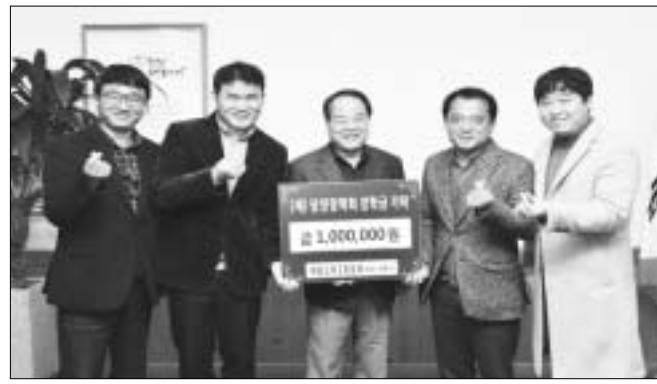
하는 첫 걸음으로 디양장학회 미래 천년 장학금을 기탁하기로 결정했다.

회원들은 “회원들의 회비를 모은 첫 기탁인 만큼 여유가 있을 때마다”며 “앞으로도 모교인 고려고등학교와 (재) 디양장학회를 통해 인재 양성에 꾸준히 참여하고자 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군 관계자는 “타 지역에 위치한 모교의 이름으로 장학금 기탁을 해주시는 첫 사례라며, 앞으로 지역 인재육성에 대한 관심과 나눔문화 확산의 불씨가 되었으면 한다”고 감사를 전했다.

디양=박종영 기자

재담고려고 동문회, 미래천년 장학금 기탁



대천년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전했다.

재담고려고 동문회는 광주 소재 고려고등학교를 졸업한 담양 지역 민과 공직자

등 15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동문회로, 지역사회에 선순환을 이루고자

한국효도회 강진 마삼섭회장, 우유 기탁



우유를 꾸준하게 기탁하여 지역사회에의 귀감이 되고 있다.

마삼섭 회장은 “우유를 전달받은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준범 강진읍장은 “뜻이 있는 분들이 기부에 많이 참여해 주실 것과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강진읍시무소 및 충청북도립(☎ 430-5726)으로 연락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천사들의 나눔방’은 가정이나 가게에서 음식·식재료·생활용품·의류 등을 기부하여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상시 나눔의 공간으로 강진읍 아트홀에 위치해 있다.

마삼섭 회장은 2017년 11월 ‘천사들의 나눔방’이 개소할 때 200여만 원 상당의 식품 냉장고 3대를 기부했으며, 지금까지 두유와

강진=김영일 기자



영암군 도포면, 쾌적한 환경조성 전 주민 참여

영암군 도포면은 지난 18일 기관 사회단체, 이장, 주민,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면 소재지 및 주요 도로변 각 마을을 대상으로 2월 중 깨끗한 영암 만들기 일제 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날 대청소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도포면 이미지를 심어주고 주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요도로변, 하천, 공터 등에 버려진 쓰레기 수거와 불법광고물 정비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각 마을에서는 담당공무원과 이장, 새마을지도자가 중심이 되어 청결하고 살기좋은 마을분위기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영암=조대호 기자



강진소방서, 자활근로 참여자 심폐소생술 교육

강진소방서는 19일 오후 장흥군 지역 저소득 자활근로 참여자 및 자활기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생활안전 교육을 실시 하였다.

강진=김영일 기자



광주 동부소방서, 화재 없는 안전마을 관리

광주 동부소방서는 20일 오후 2011년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조성된 동구 용연마을 및 내지마을에 방문하여 사후 관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용규 기자



무안경찰, 민주·인권·민생경찰 위한 간담회

무안경찰서는 21일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주·인권·민생경찰’을 위한 간담회 및 ‘노인학대 예방’, ‘웹하드 카트텔 근절’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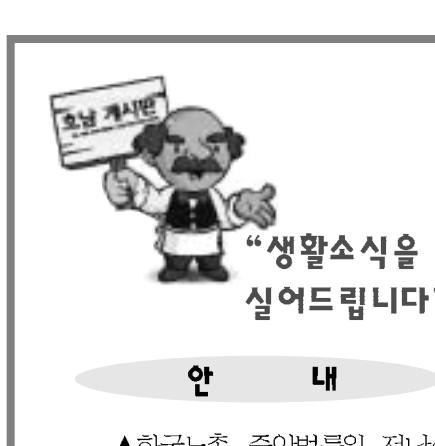
무안=이기성 기자



완도해경, 수상레저 안전문화 확산운동 추진

완도해양경찰서는 국민의 수상레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2019년 수상레저 안전문화 확산운동’을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완도=김광수 기자



안내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남상 담소 (061)792-0362 한국노총 순천 노동상담소 (061-721-7363) 한국노총 여수 상담소 (062-665-5293)

▲호남해바리기아동센터 시스 템 무상제공= 13세 이동 및 젊은 지체 장애인 대상 긴급구조, 상담, 의료, 심리치료(062-232-1375)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남상 담소 (061)792-0362 한국노총 순천 노동상담소 (061-721-7363) 한국노총 여수 상담소 (062-665-5293)

▲호남해바리기아동센터 시스 템 무상제공= 13세 이동 및 젊은 지체 장애인 대상 긴급구조, 상담, 의료, 심리치료(062-232-1375)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남상 담소 (061)792-0362 한국노총 순천 노동상담소 (061-721-7363) 한국노총 여수 상담소 (062-665-5293)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남상 담소 (061)792-0362 한국노총 순천 노동상담소 (061-721-7363) 한국노총 여수 상담소 (062-665-5293)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남상 담소 (061)792-0362 한국노총 순천 노동상담소 (061-721-7363) 한국노총 여수 상담소 (062-665-5293)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남상 담소 (061)792-0362 한국노총 순천 노동상담소 (061-721-7363) 한국노총 여수 상담소 (062-665-5293)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남상 담소 (061)792-0362 한국노총 순천 노동상담소 (061-721-7363) 한국노총 여수 상담소 (062-665-5293)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남상 담소 (061)792-0362 한국노총 순천 노동상담소 (061-721-7363) 한국노총 여수 상담소 (062-665-5293)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남상 담소 (061)792-0362 한국노총 순천 노동상담소 (061-721-7363) 한국노총 여수 상담소 (062-665-5293)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남상 담소 (061)792-0362 한국노총 순천 노동상담소 (061-721-7363) 한국노총 여수 상담소 (062-665-5293)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남상 담소 (061)792-0362 한국노총 순천 노동상담소 (061-721-7363) 한국노총 여수 상담소 (062-665-5293)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남상 담소 (061)792-0362 한국노총 순천 노동상담소 (061-721-7363) 한국노총 여수 상담소 (062-665-5293)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남상 담소 (061)792-0362 한국노총 순천 노동상담소 (061-721-7363) 한국노총 여수 상담소 (062-665-5293)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남상 담소 (061)792-0362 한국노총 순천 노동상담소 (061-721-7363) 한국노총 여수 상담소 (062-665-5293)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남상 담소 (061)792-0362 한국노총 순천 노동상담소 (061-721-7363) 한국노총 여수 상담소 (062-665-5293)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남상 담소 (061)792-0362 한국노총 순천 노동상담소 (061-721-7363) 한국노총 여수 상담소 (062-665-5293)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남상 담소 (061)792-0362 한국노총 순천 노동상담소 (061-721-7363) 한국노총 여수 상담소 (062-665-5293)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남상 담소 (061)792-0362 한국노총 순천 노동상담소 (061-721-7363) 한국노총 여수 상담소 (062-665-5293)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남상 담소 (061)792-0362 한국노총 순천 노동상담소 (061-721-7363) 한국노총 여수 상담소 (062-665-5293)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남상 담소 (061)792-0362 한국노총 순천 노동상담소 (061-721-7363) 한국노총 여수 상담소 (062-665-5293)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남상 담소 (061)792-0362 한국노총 순천 노동상담소 (061-721-7363) 한국노총 여수 상담소 (062-665-5293)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남상 담소 (061)792-0362 한국노총 순천 노동상담소 (061-721-7363) 한국노총 여수 상담소 (062-665-5293)</